

청년층의 노동시장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소득계층별 첫 일자리 이행과 임금수준 비교를 중심으로

변금선¹⁾

요약

본 연구는 한국교육고용패널조사(KEEP) 데이터를 활용하여 청년층의 노동시장 성과 수준이 고등학교 3학년 시점의 원가구 소득계층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지를 확인하였다. 첫째, 케플란-마이어 분석과 콕스의 비례 해저드모형을 이용하여 첫 일자리 이행기간(졸업 혹은 중퇴 후 미취업 탈출확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소득1분위에 비해 소득4분위와 소득5분위의 첫 일자리 이행기간이 더 긴 것으로 나타났으며, 남성이 여성에 비해, 고졸에 비해 대졸인 경우, 자격증이 없는 경우, 직업훈련 경험이 없는 경우 첫 일자리 이행기간이 길었다. 둘째, 2012년 고용상태와 이직횟수에 있어서는 소득계층과 성별, 교육수준, 취업준비 노력 등에 따른 차이를 발견하기 어려웠다. 이는 청년층 일자리 이동의 복잡성을 반영하지 못한 본 연구의 한계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헤크만 표본선택모형과 헤크만프로빗모형을 이용해 2012년 로그임금과 저임금근로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소득1분위에 비해 소득4분위와 소득5분위의 임금수준이 높고 저임금근로를 할 가능성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더불어 남성인 경우,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해외연수 경험이 있는 경우에 임금수준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는 청년층의 경제적 곤란과 불안을 완화하는데 있어서 생애주기적 관점을 반영한 장기적 전략이 요구되며, 고용과, 교육, 복지를 포괄하는 통합적 정책이 확충되어야 함을 제언하였다.

핵심주제어: 한국교육고용패널(KEEP), 청년층 노동시장 성과, 생존분석, 표본선택모형

I. 서론

경제성장으로 인해 삶의 수준이 높아졌지만 청년층은 대표적인 ‘불안세대’로 여겨지고 있다. 청년층의 고실업과 비정규직 및 저임금 일자리의 증대는 청년들을 노동 취약계층으로 전락시키고 있다. 통계청 <고용동향>에 따르면 만 15~29세 청년실업률은 2013년 현재 8.5%로 전체 실업률 3.0%와 두 배 이상 차이가 나며, 중위소득 60%를 기준으로 빈곤율의 경우 25-29세 청년은 2008년 현재 11.7%(김수정, 2010), 18세이상 34세 이하 청년은 2009년 현재 6.5%에 이른다(변금선, 2012). 부모로부터 지원을 받는 아동에서 경제적으로 자립할 능력을 갖춘 성인으로 이행해야 할 청년들이 경제적 불안에 놓여있는 것이다.

1)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사수료.

청년층의 경제적 안정을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청년들이 노동시장에서 적정 수준의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의 이행기이자, 일자리 탐색기인 청년기의 노동 특성, 그리고 고학력화와 과잉스펙으로 인한 임금 경쟁의 심화라는 노동시장 조건을 고려할 때 청년층의 노동시장 성과는 취업여부와 더불어 일자리의 이행, 이동 그리고 임금수준을 통해 다면적으로 측정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임금 경쟁의 심화 속에서 인적자본 변수의 영향력이 보다 크다는 점에서 인적자본 수준을 결정하는 원가구의 소득수준에 따른 노동시장 성과의 차이에 주목해야 한다. 현실에서 청년층이 겪는 불안의 크기는 동일한 것이 아니라 청년 개인이 속한 가구의 경제 상태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청년층의 노동시장 성과에 대해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져 왔지만, 기존 연구들은 청년층을 동질적 집단으로 보고 노동시장 진입이나 구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거나(이병희, 2002; 전재식, 2002; 안주엽·홍서연, 2007; 황여정·백병부, 2008; 정미나·임영식, 2010; 김민경·류지영, 2011; 정지선·이수정·신정철, 2011; 임병인·김성태·김명규, 2012), 인적자본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가구소득 수준 고려하더라도, 대졸자나 고졸자의 한 집단의 노동시장 성과를 분석한다(성효용·김민경, 2003; 이규용·김용현, 2003). 또한 특정 시점의 취업여부로 노동시장 성과를 측정하여 청년층의 노동시장 성과를 면밀히 확인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조우현, 1995; 채창균·김태기, 2009). 따라서 본 연구는 기존 연구의 한계를 고려하여 청년층의 노동시장 성과를 학교를 졸업하거나 중퇴한 이후 첫 일자리를 얻기까지의 이행기간, 고용불안정, 임금수준으로 측정하며, 청년층의 노동시장 성과가 그들이 속한 원가구의 소득수준에 따라 다른 양상을 나타내는지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청년층의 노동시장 성과를 포괄적으로 분석한다는 점에서 청년층이 처한 경제적 불안의 요인을 폭넓게 검토할 수 있다. 청년층의 경제적 불안은 전 사회의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으며, 청년기의 낮은 노동시장 성과는 인적자본의 형성을 저해하고, 개인의 생애소득을 감소시킬 뿐만 아니라 국가 전체의 성장 토대를 약화시킬 수 있다(손혜경, 2009; 삼성경제연구소, 2010). 뿐만 아니라 저소득계층 청년들이 처하는 노동시장 진입과 성과의 불리함은 ‘빈곤의 대물림’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빈곤의 확산을 막기 위한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다. 또한 본 연구는 기존 연구에서 제한적으로 시도되었던 가구소득에 따른 청년층의 노동시장 성과의 차이를 패널데이터를 이용해 포괄적이고 직접적으로 분석한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을 갖는다. 이를 통해 아동기 부모의 경제수준과 자녀의 성인기 성과의 인과관계를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청년층의 경제적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적 대안 마련에 기여할 수 있다. 최근의 고용정책, 복지정책의 확대로 경제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각종 사회정책이 쏟아지고 있지만 사회불안의 핵심으로 지목되는 청년층을 타깃으로 한 정책은 단편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다. 청년층의 안정을 위해서는 이들의 노동시장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여 이를 기반으로 청년층의 경제적 자립을 돕는 실질적인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 연구는 청년층이 교육과정을 마친 이후 노동시장으로 이행함에 있어서 경제적 안정성을 획득하는데 필요한 요건을 확인한다는 점에서 청년층을 위한 사회정책 전략을 마련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청년층의 노동시장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포괄적으로 분석하고, 청년층의 노동시장 성과가 청년이 속한 원가구의 소득계층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비교한다. 이를 통해 청년층의 경제적 안정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II. 선행연구 검토

1. 청년층의 노동시장 성과

청년층의 노동시장 성과는 전 생애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최근 청년 노동시장의 높은 고용불안정과 노동수요의 부족은 청년층의 노동시장 성과 수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청년기는 아동에서 성인으로의 이행이 일어나는 발현성인기(emerging adulthood)로 생애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결정되는 시점이다(Arnett, 2000; 변금선, 2013 재인용). 따라서 청년층의 낮은 노동시장 성과는 노동생애 전반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의 이행이 이루어진 이후 초기 경력은 이후 노동생애에 상처(scar)로 작용하여 첫 일자리의 수준이 이후에도 지속될 수 있기 때문이다(이병희, 2002). 또한 청년기의 낮은 노동시장 성과는 아동에서 성인으로의 이행을 늦춰서 부모세대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Danziger and Ratner, 2010). 최근 청년층의 높은 실업률과 비정규직의 증대에 대한 높은 사회적 관심도 이러한 이유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노동시장 성과는 노동시장에서의 취업, 일자리의 안정성, 노동의 가격을 반영하는 임금수준으로 측정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노동시장 성과가 높다는 것은 취업, 빠른 일자리의 획득, 일자리의 지속, 높은 임금 등을 의미한다. 하지만 청년층의 노동시장 성과는 이와는 다른 양상을 보일 수 있으므로 노동시장 성과를 결정하는 요인을 확인함에 있어서 청년층의 노동 특성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 우선 청년층의 노동행위의 특성은 잦은 일자리 이동으로 설명되곤 한다. 이는 청년층이 다른 근로연령층에 비해 일자리 경력이 적고, 노동생애의 측면에서 다면적 이행을 경험하는 시기라는 점이 반영된 결과이다. 청년기는 노동생애에 있어서 교육과 훈련을 마치고 독립적인 성인 노동자로 발돋움하는 시기이므로 일자리를 탐색하고 이를 통해 경력을 형성한다. 최근 높은 청년실업률은 청년으로 하여금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의 이행, 그리고 취업에서 실업으로 이행을 동시에 경험하게 만들고 있다²⁾. 청년층의 노동시장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청년층의 경험하는 이행의 과정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

2) 교육 및 훈련에서 고용으로의 이행은 이행노동시장이론(Transition Labor Markets)에서 다양한 일자리 이행의 유형 중 하나에 속한다. 이행노동시장이론은 노동이동이 전 생애에 걸쳐 교육·훈련과 고용 간의 이행, 단시간 노동과 전일제 고용 간 또는 피고용 노동과 자영업 간의 이행, 실업과 고용 간의 이행, 사적인 가사활동과 취업 간의 이행, 취업과 은퇴 간의 이행 등으로 다양하게 나타난다고 설명한다(Schmid, 1998; 김동현, 2011: 재인용).

청년층의 임금수준은 교육, 기술 수준에 의해 임금수준이 결정된다는 인적자본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다(Becker and Thomes, 1994). 노동시장 성과에 관련된 인적자본 변수는 교육수준, 자격증, 학점, 직업훈련 등이 있는데, 교육수준이 낮거나 자격증이 없고 충분한 직업훈련을 받지 않아 인적자본 수준이 낮을수록 낮은 임금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 청년층의 고학력화와 과잉스펙은 보다 높은 소득을 얻기 위한 경쟁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다. 청년층의 높은 인적자본 수준은 청년들의 평균 임금수준을 높일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그러한 인적자본을 갖추지 못한 청년들을 구직대열의 뒷자리에 서게 만들고 나아가 노동시장의 변두리에서 낮은 임금과 높은 고용불안정에 처하게 만들 수 있다. 이는 인적자본 수준이 청년층의 노동시장 성과를 결정하는 핵심적 요인으로 작용하게 만드는 이유이기도 하다.

한편, 인적자본 수준은 인적자본을 산출하는 투입 자원이라고 할 수 있는 원가구소득 혹은 부모소득에 의해 결정된다. 부모가 가진 소득수준에 따라 자녀에 대한 투자의 정도가 달라지고 이에 따라 개인의 인적자본 수준에 차이가 나타나게 된다. 청년기 노동시장 성과와 가구소득의 관계는 세대간이동성, 아동기 빈곤의 영향에 대한 연구를 통해 많은 논의가 이루어져 왔다. 아동기 부모의 낮은 소득은 자녀가 성장했을 때 경제활동, 임금수준 등의 노동시장 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이러한 영향은 교육수준이라는 인적자본 변수를 통해서 나타난다(Hill and Duncan, 1987; Corcoran et al., 1992; Solon, 1992; Duncan and Brooks-Gunn, 1997; Duncan et al., 2010). 한편, 원가구의 낮은 소득이 청년기의 임금수준이나 소득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논쟁의 여지가 없으나, 원가구 소득이 청년기의 노동시장 참여나 근로시간에 미치는 영향은 다소 불분명할 수 있다. 이는 앞서 설명한 청년층의 노동이행 특성이 반영된 것이다.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의 이행, 그리고 경력을 위한 일자리 간의 이동이라는 청년층의 노동 특성을 고려할 때 졸업 후 빨리 취업을 하고, 청년기에 많은 시간동안 노동을 하고 있는 것만으로 노동시장 성과가 높다고 설명할 수 없다. 가구소득 수준이 높은 경우에는 졸업을 하더라도 당장 일을 해야 하는 근로동기가 낮으며, 높은 임금과 안정된 일 자리를 얻기 위한 일자리 탐색 기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2. 실증연구 검토

청년층의 노동시장 성과에 대한 연구들은 주로 패널자료(한국교육고용패널, 한국노동패널, 대졸자 직업이동경로조사, 청년패널 등)를 이용하여 청년층의 취업여부, 첫 일자리 이행기간, 임금수준, 대기업 취업 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해왔다.

청년층의 취업 혹은 일자리 이행에 대한 연구들은 성별, 교육수준, 취업 준비노력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한다. 채창균과 김태기(2009)는 대졸자 직업이동경로조사 자료를 이용해 2006년 시점의 취업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였는데, 입학시점 가구소득이나 출신대학의 영향은 크지 않고 어학연수나 자격증 여부 등 취업준비 노력 역시 취업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임병인, 김성태, 김명규(2012)는 한국교육고용패널자료의 2004년 고등학교 3학년 코호트를 이용해 2011년 현재 취업여부와 정규직 취업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여자인 경우, 졸업후 경과기간이 길수록 인턴경험이 있을수록 취업할 가능성이 높았고, 해외연수 경험과 자격증 취득 횟수는 취업확률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노동시장으로의 완전한 이행이 이루어지지 않은 청년층의 특성을 고려할 때 특정 시점의 취업여부로 노동시장 성과를 측정하는 것은 취업을 한 것이 긍정적인 노동시장 성과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중장기적으로 추적조사된 패널조사의 장점을 활용해 일자리 이행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는 연구들은 청년층의 이러한 노동 특성을 반영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관련하여 이규용과 김용현(2003), 김안국과 신동준(2007), 박천수(2009), 천영민(2012)은 생존분석을 이용해 졸업 후 첫 일자리 이행기간(미취업탈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였는데 남성의 미취업탈출율이 여성에 비해 낮고, 어학연수 경험이 있는 경우와 직업훈련 경험이 있는 경우 미취업탈출율이 높은 것을 확인하였다. 청년층의 고용불안정과 관련해서 반정호·김경희·김경휘(2005)는 청년패널 자료를 이용해 여성이나 저학력자의 비정규직 고용 확률이 높고, 공식적인 경로를 통해 취업한 경우 일자리 안정성이 높다고 분석하였으며, 이병희(2002)는 한국노동패널자료를 이용해 청년층의 잦은 일자리 이동이 임금수준에 부의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하고, 노동시장 초기 경험이 이후의 노동시장 성과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음의 의존성이 있다고 지적하였다. 한편, 청년층의 임금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는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그리고 남성일수록 해외연수와 취업준비노력이 임금수준을 높인다고 분석하고 있다(이병희, 2002; 이규용, 김용현, 2003; 박성재·반정호; 2007; 박천수, 20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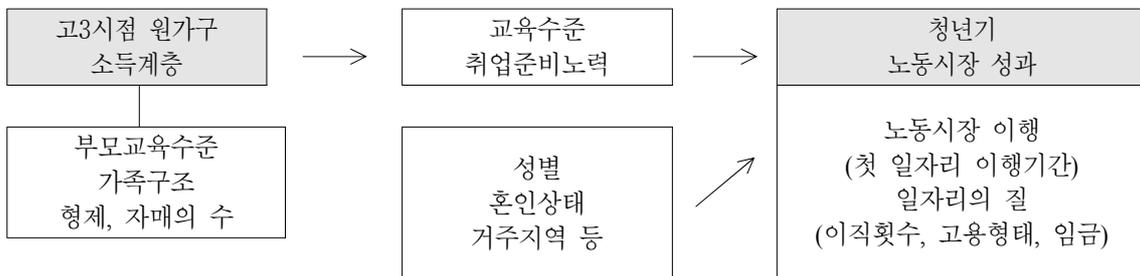
이상의 연구들은 인적자본 변수가 노동시장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공통적으로 확인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청년기의 노동특성과 이들이 놓인 일자리 경쟁 환경을 고려할 때 인적자본에 영향을 미치는 원가구의 소득수준을 반영하여 노동시장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할 필요성이 있다. 하지만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청년층의 노동시장 성과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빈곤의 세대간 이전, 소득이동성과 관련해 연구가 이루어져 왔으며(김위정·김왕배, 2007; 이상은, 2008; 최지은·홍기석, 2011), 청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에 따라 노동시장 성과에 차이가 나타나지는지를 확인한 연구는 변금선(2013)의 연구가 있다. 변금선(2013)은 한국노동패널자료를 이용해 17세 시점 청소년기 빈곤이 청년기의 고용상태와 임금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였는데, 교육수준을 통제하더라도 청소년기 빈곤은 임금수준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고 있다. 하지만 이 연구는 졸업시점에 따른 경력의 차이를 고려하지 못하였고, 임금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인적자본 변수인 취업준비 노력을 통제하지 못하였다는 한계가 있다.

본 연구는 청년층의 노동 특성을 고려하여 노동시장 성과를 첫 일자리 이행기간, 고용상태, 이직횟수, 임금수준으로 측정한다. 더불어 청년층의 노동시장 성과를 결정하는 주된 요인으로 지목되는 인적자본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고등학교 3학년 시점의 원가구 소득수준을 반영해 청년층의 노동시장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다. 이를 통해 기존 연구에서 확인하기 어려웠던 청년층의 노동시장 성과의 소득계층별 차이를 규명하고자 한다.

Ⅲ. 분석방법

1. 연구모형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첫째, ‘청년층의 노동시장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가?’, 둘째, ‘청년층의 노동시장 성과는 소득계층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가?’ 이다. 여기서 노동시장 성과는 교육을 마치고 일자리에 진입하는 노동시장 이행(학교 졸업 혹은 중퇴 이후 첫 일자리 진입에 걸리는 기간), 현 일자리의 고용안정성(고용상태, 이직횟수), 현 일자리의 임금수준으로 측정한다. 소득계층은 고등학교 3학년 시점 가구소득을 5분위 소득계층별로 구분하여, 소득분위 집단별로 노동시장 성과에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한다. 다음은 본 연구의 모형을 도식화 한 것이다.



[그림 1] 연구문제의 도식화

2. 분석자료 및 분석방법

1) 분석자료

본 연구는 한국교육고용패널(Korean Education and Employment Panel ; KEEP)의 고등학교 3학년 패널 자료를 사용하였다. 한국교육고용패널은 전국 6,000명의 학생과 그들의 학부모 및 담임교사와 학교행정가를 표본으로 하여 2004년부터 현재까지 총 9차회에 걸쳐서 조사가 진행되었다. 본 연구의 분석대상은 한국교육고용패널 1차년도(2004년) 고등학교(일반계 및 실업계) 3학년 코호트 4,000명이며, 1차부터 9차까지 조사가 완료된 표본은 2,514명으로 조사성공률은 76.4%이다. 이들 중 현재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휴학 중인 재학생, 졸업시기가 누락되고 현재 일자리 관련 정보 등 주요 변수가 결측된 사례를 제외한 최종 분석사례는 1,140명이다. 첫 일자리 취업 이행기간 모형에서는 졸업 혹은 중퇴 이후 첫 일자리 취업 이후 학교에 입학한 경우를 제외하여 생존분석에 사용된 최종 분석사례는 988명이다.

2) 분석방법

본 연구의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의 이행기간에 미치는 영향은 케플란-마이어 분석(Kaplan-Meier analysis)과 콕스의 비례 해저드 모형(Cox proportional hazards model)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종속변수는 학교 졸업 혹은 중퇴 이후 첫 일자리를 획득하기까지 걸린 기간으로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 이행하는데 소요된 기간을 의미한다. 이행기간은 2005년 2월 고등학교 졸업시점을 기준점으로 설정해 졸업 및 중퇴 이후 첫 일자리의 지속기간에서 졸업 및 중퇴시점의 차이로 계산하였다. 졸업 및 중퇴시점 이전에 취업한 경우는 '0'으로 코딩하여 좌측절단된 값으로 처리하였으며, 졸업 및 중퇴 이후 현 시점까지 한 번도 일자리를 가져본 경험이 없는 경우는 우측절단된다. 콕스의 비례 해저드 모형은 우측절단된 사례를 고려하여 미취업탈출확률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할 수 있게 해준다. 독립변수는 고등학교 3학년 시점 가구소득의 소득5분위로, 기준집단은 소득하위 20%인 1분위로 설정하였다. 가구소득은 가구원 수의 제곱근으로 나누어 균등화하였다. 정확한 분석을 위해서는 고등학교 졸업 이후인 대학교 재학 시기의 가구소득을 반영해야 한다. 하지만 2차년도 이후 가구소득 변수에 결측치가 많았고 '원가구 소득-인적자본 수준-노동시장 성과'로 이어지는 변수간 인과관계의 방향을 고려해 고등학교 3학년 시점 가구소득 변수만을 이용하였다. 통제변수는 성별, 졸업 및 중퇴 시점 이전까지의 취업준비노력, 졸업 및 중퇴시점 당시 최종 학력을 투입하였다. 취업준비노력은 자격증 취득 유무, 직업훈련 경험 유무, 해외연수 경험 유무로 더미변수화 하였으며, 교육수준은 고등학교 졸업을 기준으로 전문대학교 졸업, 대학교 졸업 이상으로 구분하였다. 자격증에는 초등학교 정교사, 의사, 공인회계사, 한식조리기능사 등의 자격증이 포함되며, 직업훈련기관에는 국가 훈련기관과 사설학원이 포함된다. 한편, 노동시장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된 가족배경 변수인 부모의 교육수준, 가족구조, 형제 및 자매의 수도 통제하였다³⁾.

둘째, 고용불안정 모형의 종속변수는 고용상태와 이직횟수이고, 독립변수는 첫 일자리 이행기간 모형과 마찬가지로 고등학교 3학년 시점 가구소득 5분위이다. 고용상태는 2012년 현재 고용상태가 비정규직인 경우를 기준으로 하여, 정규직, 비취업으로 구분하였다. 정규직은 정규직 여부를 묻는 문항에 정규직이라고 응답하고, 기간제근로·시간제근로·간접고용이 아닌 경우로 구분하였다. 통제변수로 2012년 현재 기준 최종학력, 1차 조사시점인 2004년 이후 2012년 현재까지 자격증 유무, 직업훈련 경험 유무, 해외연수 경험 유무와 가족배경 변수, 그리고 졸업시점의 차이를 보정하기 위해 졸업 및 중퇴 이후 현시점까지의 기간을 투입하였다. 고용상태는 다항로지스틱(Multinomial logistic regression model)을, 이직횟수는 선형회귀모형(Ordinary least square model)을 이용해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임금모형의 종속변수는 임금과 저임금 근로자 여부이다. 임금은 2012년 현재 일자의 시간당임금을 계산해 로그로 전환하였으며, 저임금 근로 여부는 OECD 기준을 따라 중

3) 여기서 부모의 교육수준과 가족구조는 고등학교 3학년 시점의 가구소득 수준을 보완해주는 역할을 할 수 있다. 부모의 교육수준은 부모와 자녀의 세대간 이전에 대한 연구에서 부모의 생애소득을 측정하는 도구변수 혹은 대리변수로 활용되며, 한부모 가구는 아동기의 낮은 소득을 설명하는 주요 변수이기 때문이다.

위임금의 2/3 미만 여부로 측정하였다. 임금은 현재 일을 하지 않거나 무급종사자인 경우에는 측정할 수 없다. 이 때 현재 일을 하고 있는 사람만을 대상으로 분석을 할 경우, 표본선택 편 의(sample selection bias)가 발생하여 추정을 신뢰하기 어렵다. 특히 청년기는 일자리 탐색 시 기라는 점, 그리고 종속변수인 임금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인적자본 변수에 의해 취업여부가 결정될 수 있다는 점에서 사례누락에 편의가 없다는 조건을 충족하기 어렵다. 표본선택 편 의를 보정하기 위해 1단계 취업여부에 대한 프로빗 모형으로 IMR을 계산하고, 이어서 IMR을 포함해 임금수준과 저임금근로자 여부를 추정하는 헤크만의 2단계 표본선택모형(Heckman's sample selection model)과 헤크만 프로빗 모형(Probit model with sample selection)을 이용해 분석하였다. 표본선택모형이 식별되기 위해서는 취업여부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임금수 준이나 저임금근로 여부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변수를 1단계에 투입하고 2단계에 는 투입하지 않아야 한다. 여기서는 노동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진 배우자 유무, 가 구내 소득수준(본인 근로소득 제외), 지역의 노동시장 상황을 반영하는 거주지역의 규모 변수 를 1단계에 만 투입했다⁴⁾. 2단계 임금결정 모형에는 교육수준, 취업준비노력, 현재 일자리 지 속기간 변수만을 투입하였다. 다음 <표 1>은 변수의 속성과 단위이다.

<표 1> 변수 설명

변수			속성 및 단위
종속 변수	노동이행	첫 일자리 이행기간	졸업 혹은 중퇴 이후 첫 일자리를 갖기까지 걸린 기간
	고용 불안정	고용상태	2012년 현재 고용상태, 비정규직=0, 정규직=1, 미취업=0 정규직=정규직, 계약기간 없음, 시간제 근로 아님, 간접고용(파 견, 용역) 아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아님.
		이직횟수	2005~2012년까지 이직횟수
	임금	임금수준	2012년 현재 임금수준, 만원 (모형분석시에는 로그전환)
		저임금여부	2012년 현재 임금이 중위임금의 2/3 미만=1, 이상=0
독립 변수	소득계층	고3시점 소득분위	$\sqrt{\text{가구원수}}$ 로 균등화 한 고등학교 3학년 시점 가구소득 1분위(하위20%)=0, 2분위=1, 3분위=2, 4분위=3, 5분위=4
통제 변수	성별		남성=1, 여성=0
	교육수준		첫 일자리 취득시점 혹은 2012년 현재 최종학력 고졸=0, 전문대졸=1, 4년제 대졸 이상=2
	취업 준비 노력	해외연수	첫 일자리 취득시점 혹은 2012년 이전 해외연수 경험 있음=1, 없음=0
		자격증	상동, 있음=1, 없음=0
		직업교육훈련	상동, 있음=1, 없음=0

<표 계속>

4) 한편, 임금추정모형에는 회사규모, 회사지역, 산업, 직종 등의 변수를 포함시키기도 하지만 본 연구의 목적은 가능한 모든 변수를 통제된 상태에서 임금 자체의 순수한 차이인 '임금차별'을 확인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임금수준을 통해 노동시장 성과를 측정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변수를 투입하지 않았다. 즉, 본 연구에서 임금수 준은 이러한 일자리의 특성을 모두 반영한 노동시장 성과의 결과변수라고 할 수 있다.

변수		속성 및 단위
통제 변수	거주지역	2012년 거주지역, 특별시=0, 광역시=1, 시=2, 읍면=3
	혼인상태	2012년 배우자 있음=1, 없음=0
	가구소득	2012년 본인 근로소득을 제외한 가구소득 (만원)
	부모의 학력	아버지의 교육연수(없는 경우 어머니의 교육연수) (년)
	형제, 자매의 수	고등학교 3학년 시점 형제, 자매의 수 (명)
	가족구조	고등학교 3학년 시점 가족구조 양부모=0, 한부모=1

IV. 분석결과

1. 일반적 특성

<표 2>는 분석대상의 일반적 특성이다. 첫째, 성별을 살펴보면 전체 청년의 48.7%가 여성이고 51.3%가 남성으로 여성에 비해 남성이 다소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소득계층별 성별을 살펴보면 소득1분위 집단과 소득2분위 집단은 여성의 비중이 각각 59.2%, 50.43%로 남성에 비해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소득3분위부터 소득5분위는 남성의 비중이 다소 많았다. 둘째, 거주지역은 서울시, 시, 광역시, 읍면 순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소득분위도 이와 유사한 분포를 보였다. 셋째, 배우자 유무의 경우 전체의 10.4%가 2012년 현재 배우자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소득분위별로는 1분위의 배우자 있음 비율이 13.7%로 가장 높은 비중을 나타냈으며, 5분위가 8.2%로 배우자가 있는 경우가 가장 적었다. 넷째, 현재 가구소득을 살펴보면 분석대상 전체의 월평균가구소득은 484만원이었으며, 5분위, 3분위, 4분위, 1분위, 2분위 순으로 월평균소득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5분위와 4분위를 제외하고 1~3분위의 경우는 고등학교 3학년 시점 가구소득과 현재 가구소득 간의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고등학교 3학년 시점 소득은 청년이 속한 원가구의 소득을 의미하지만 2012년 가구소득은 부모소득과 더불어 본인의 비근로소득과 배우자의 소득이 포함된 것으로 인한 차이일 수 있다. 다섯째, 부모의 교육수준은 평균 11.2년이었으며 1분위 9.2년, 2분위 10.7년, 3분위 11.3년, 4분위 11.8년, 5분위 13.5년으로 소득분위와 평균 교육연수 순위가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섯째, 전체의 12.0%가 한부모 가구였으며, 1분위와 2분위의 한부모가 가구 비중이 각각 24.6%, 14.8%로 높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형제·자매의 수는 전체 평균 2.4명이었으며 소득 1분위의 형제·자매의 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일반적 특성

구분		가구 소득분위					(%, 명)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전체
성별	여성	59.27	50.34	49.51	39.3	41.54	48.68
	남성	40.73	49.66	50.49	60.7	58.46	51.32
거주지역	특별시	10.08	18.97	21.36	19.4	32.82	19.91
	광역시	28.23	26.9	26.21	34.83	26.67	28.42
	시, 군	45.97	42.41	38.83	35.32	36.41	40.26
	읍, 면	15.73	11.72	13.59	10.45	4.1	11.4
배우자유무	있음	86.29	91.03	88.35	90.55	91.79	89.56
	없음	13.71	8.97	11.65	9.45	8.21	10.44
월가구소득(만원)	평균	428.04	408.82	528.87	490.79	612.99	484.07
	se	38.51	26.43	43.83	32.17	42.92	16.37
부모교육수준(연)	평균	9.19	10.71	11.32	11.83	13.51	11.17
	se	0.19	0.16	0.18	0.18	0.22	0.09
한부모 가구	부모가구	75.4	85.17	89.81	96.52	97.44	87.98
	한부모가구	24.6	14.83	10.19	3.48	2.56	12.02
형제, 자매 수(명)	평균	2.80	2.33	2.43	2.08	1.99	2.35
	se	0.07	0.04	0.05	0.04	0.04	0.02
전체(N)		248	290	206	201	195	1,140

2. 소득계층별 인적자본 수준 및 노동시장 성과 비교

여기서는 교육수준과 취업준비 노력 등의 인적자본 수준과 첫 일자리 이행, 이직횟수, 고용 상태, 임금수준 등의 노동시장 성과를 고등학교 3학년 시점 원가구의 소득계층별로 비교 분석하였다. <표 3>은 소득계층별 교육수준과 취업준비 노력 현황이다. 먼저 교육수준을 살펴보면 전체의 38.3%가 4년제 대학교 졸업 이상이며, 34.8%는 전문대학교를 졸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의 72.1%가 대학교에 진학한 것으로 청년층의 높은 학력수준을 반영한다. 한편, 이는 현재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휴학 중인 사례는 제외된 것으로 이들을 포함할 경우 전체 교육수준은 상향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소득계층별로 살펴보면, 고등학교 3학년 시점 가구소득이 1분위였던 청년 중 4년제 대학교를 졸업한 청년은 15.3%인 것에 비해 5분위 청년은 63.1%가 4년제

대학교를 졸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원가구의 소득수준에 따라 자녀의 교육수준이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어서 취업준비 노력을 살펴보면 전체 청년의 62.4%가 자격증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소득분위별 차이는 크지 않았다. 하지만 직업훈련과 해외연수 경험은 소득계층별로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훈련의 경우 전체 청년의 21.8%가 직업훈련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소득1분위 집단은 그 비중이 17.7%에 불과했다. 해외연수는 소득계층별 차이가 컸다. 전체 청년의 약 8.0%가 해외연수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소득계층별로 보면 소득1분위 청년은 그 비중이 3.6%인 반면에 소득5분위 청년은 13.9%로 소득1분위 청년보다 10.3%포인트 더 많이 해외연수 경험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소득계층별 교육수준 및 취업준비 노력

(단위: %)

구분	교육수준			취업준비 노력			
	고졸	전문대졸	대졸이상	자격증	직업훈련	해외연수	
소득 분위	1분위	43.55	41.13	15.32	62.50	17.74	3.63
	2분위	26.90	37.24	35.86	60.69	21.72	7.59
	3분위	25.73	32.04	42.23	65.05	28.16	9.22
	4분위	20.40	37.31	42.29	63.18	18.41	6.97
	5분위	13.33	23.59	63.08	61.03	24.10	13.85
전체	26.84	34.82	38.33	62.37	21.84	7.98	
N	1,140			1,140			

<표 4>는 소득계층별 일자리 이행기간, 이직횟수, 고용상태를 보여준다. 첫째, 졸업 혹은 중퇴 후 첫 일자리를 얻기까지의 기간을 의미하는 첫 일자리 이행기간은 전체 청년이 평균 6.8개월이었으며, 이는 대졸자 직업이동 경로조사(GOMS)를 이용해 대졸자의 이행기간을 약 7개월로 분석한 천영민(2012)의 연구와 유사한 결과이다. 분위별 이행기간을 살펴보면 첫 일자리 이행기간이 가장 짧은 소득계층은 5분위 집단으로 평균 5.5개월만에 첫 일자리를 얻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행기간이 가장 긴 소득계층은 3분위 집단으로 평균 7.3개월만에 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2005년부터 2012년까지 총 이직횟수를 살펴보면 전체 청년은 평균 1.3회 이직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계층으로 살펴보면, 소득2분위 집단이 평균 1.4회로 이직횟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소득계층별로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마지막으로 고용상태를 살펴보면, 2012년 현재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휴학 중이 아닌 청년 중 비취업자는 26.5%였으며, 정규직은 50.1%, 비정규직은 23.4%였다. 소득계층별로 살펴보면 정규직 비중이 가장 높은 소득계층은 소득2분위 집단으로 55.9%가 정규직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5분위는 50.1%로 그 뒤를 이었으며 정규직 비중이 가장 낮은 소득계층은 소득3분위로 45.2%가 정규직인 것으로 나타났다⁵⁾.

5) 한편, 취업자 중 비정규직 비중은 31.9%로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의 15~29세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 비율 33.8%와 유사한 수준이었다(성재민·정성미, 2012).

<표 4> 소득계층별 첫 일자리 이행 기간, 이직횟수, 고용상태

(단위: 개월, 회, %)

구분	첫 일자리 이행기간		이직횟수		고용상태			
	평균	표준오차	평균	표준오차	비정규직	정규직	비취업	
소득 분위	1분위	7.09	0.85	1.36	0.13	23.43	48.95	27.62
	2분위	6.75	0.75	1.43	0.14	19.08	55.83	25.09
	3분위	7.32	0.87	1.21	0.14	27.41	45.18	27.41
	4분위	7.26	0.90	1.24	0.13	23.16	47.37	29.47
	5분위	5.53	0.83	1.09	0.14	26.09	50.54	23.37
전체	6.81	0.38	1.29	0.06	23.42	50.05	26.53	
N	813		763		1,093			

<표 5>는 소득계층별 평균임금과 저임금 근로자 여부를 보여준다. 2012년 현재 임금종사자 및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시간당 평균임금을 분석하였다. 전체 청년의 시간당 평균임금은 1만3백원이었으며, 소득계층별로는 소득5분위의 평균임금이 1만2천2백원으로 가장 높은 수준이었고 소득1분위의 평균임금은 9천1백원으로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 한편, 중위임금의 2/3 미만 저임금근로자는 49.1%로 절반 가까이가 임금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저임금 근로자의 비중이 가장 높은 소득계층은 1분위소득 집단으로 59.3%가 저임금근로자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소득5분위 집단의 저임금 근로자 비중은 32.2%로 가장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5> 소득계층별 평균임금 및 저임금 근로 여부

(단위: 만원, %)

구분	임금		저임금근로자	
	평균	표준오차		
소득 분위	1분위	0.91	0.05	59.34
	2분위	0.99	0.11	53.42
	3분위	0.96	0.06	51.32
	4분위	1.11	0.13	44.83
	5분위	1.22	0.10	32.24
전체	1.03	0.04	49.06	
N	850		850	

3. 청년기의 노동시장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1)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의 이행: 첫 일자리 이행기간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휴학 중인 경우를 제외하고, 2차부터 9차까지(2005년~2012년) 일자리 정보가 확인된 988명을 대상으로 케플란-마이어 분석(Kaplan-Meier analysis)과 콕스의 비례

해저드 모형(Cox proportional hazards model)을 이용하여 소득계층별로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의 이행 기간에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였다. 분석대상 988명 중 2012년 조사시점까지 취업하지 않은 우측절단된 사례는 175명이다. 이행기간에 따른 취업자의 첫 일자리 소요기간을 살펴보면 다음 <표 6>과 같다. 졸업 혹은 중퇴 이후 취업을 경험한 청년의 37.4%가 졸업 전에 취업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80% 이상이 졸업 및 중퇴 이후 12개월이 되기 전 첫 일자리를 갖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는 생존분석을 이용해 이행기간을 분석한 기존 연구와 유사한 결과이다(이규용, 김용현, 2003; 박천수, 2009).

<표 6> 이행기간에 따른 취업자의 첫 일자리 취득 소요 기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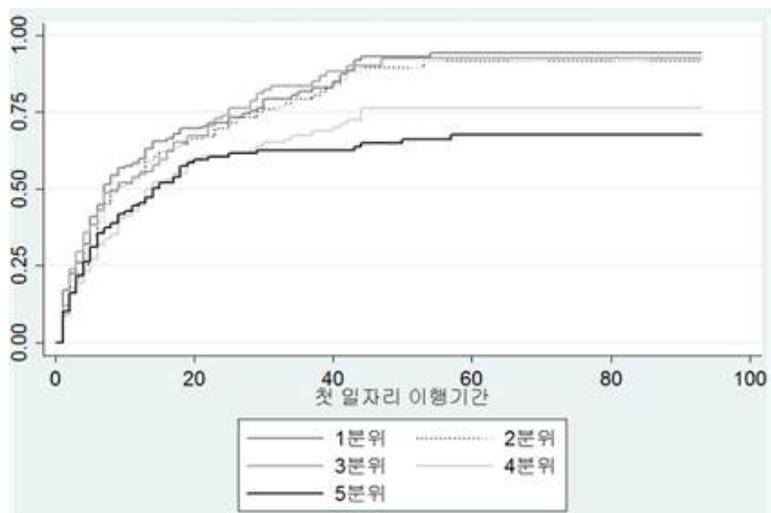
(단위: 월, 명, %)

이행기간 (월)	빈도 (event)	백분율	누적 도수	누적 백분율	이행기간 (월)	빈도 (event)	백분율	누적 도수	누적 백분율
0	304	37.39	304	37.39					
1	78	9.59	382	46.98	25	8	0.98	749	92.13
2	54	6.64	436	53.62	26	2	0.25	751	92.38
3	28	3.44	464	57.06	27	1	0.12	752	92.50
4	34	4.18	498	61.24	28	4	0.49	756	92.99
5	42	5.17	540	66.41	29	7	0.86	763	93.85
6	30	3.69	570	70.10	30	6	0.74	769	94.59
7	30	3.69	600	73.79	31	1	0.12	770	94.71
8	15	1.85	615	75.64	32	1	0.12	771	94.83
9	20	2.46	635	78.10	33	2	0.25	773	95.08
10	4	0.49	639	78.59	34	3	0.37	776	95.45
11	9	1.11	648	79.70	35	1	0.12	777	95.57
12	9	1.11	657	80.81	37	4	0.49	781	96.06
13	17	2.09	674	82.90	38	2	0.25	783	96.31
14	13	1.60	687	84.50	39	2	0.25	785	96.56
15	6	0.74	693	85.24	40	4	0.49	789	97.05
16	5	0.62	698	85.86	41	4	0.49	793	97.54
17	11	1.35	709	87.21	42	5	0.62	798	98.16
18	7	0.86	716	88.07	43	4	0.49	802	98.65
19	8	0.98	724	89.05	44	6	0.74	808	99.39
20	3	0.37	727	89.42	47	1	0.12	809	99.51
21	3	0.37	730	89.79	50	1	0.12	810	99.63
22	5	0.62	735	90.41	53	1	0.12	811	99.75
23	5	0.62	740	91.03	54	1	0.12	812	99.87
24	1	0.12	741	91.15	57	1	0.12	813	100.00

다음 <표 7>과 <그림 2>는 케플란-마이어 분석(Kaplan-Meier analysis) 결과이다. 졸업 혹은 중퇴 이후 첫 일자리를 얻기까지 평균 이행기간(생존기간)은 25.8개월이었다. 소득계층별로 살펴보면, 소득1분위의 평균 이행기간은 18개월이었던 것에 반해 소득5분위의 이행기간은 38개월로 상위 소득계층의 경우 첫 일자리로의 이행기간이 더 긴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평균 이행기간은 극단치의 영향이 크기 때문에 이행기간의 전체적인 경향을 확인하려면 누적생존확률(취업하지 않고 미취업자로 남아 있는 누적확률)이 0.5이하로 떨어지는 중위 이행기간을 확인하는 것이 적절하다. 이행기간의 중위수는 11개월이었으며, 소득 상위계층의 이행기간 중위수(4분위와 5분위 14개월)가 소득 하위계층(소득1분위 7개월)의 중위수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 Log Rank 테스트 결과($\chi^2=25.71$) 이러한 차이는 .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했다. <그림 2>는 첫 일자리 이행기간에 따른 미취업탈출율 소득계층별로 분석한 것이다. 소득1분위의 미취업탈출이 가장 가파르게 나타나며, 소득5분위는 가장 완만한 양상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원가구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일자리 탐색과 취업준비에 보다 오랜 시간을 투여함을 유추할 수 있다.

<표 7> 소득계층에 따른 첫 일자리 이행기간 평균 및 중위수 추정(KM 분석)

구분	평균		중위수	
	추정값	표준오차	추정값	표준오차
1분위	18.13	2.15	7	1.08
2분위	20.90	2.40	9	1.47
3분위	19.05	2.58	9	2.48
4분위	32.42	3.36	14	2.09
5분위	37.66	3.71	14	2.45
전체	25.77	1.34	11	0.92



[그림 2] 소득계층별 첫 일자리 이행기간에 따른 미취업탈출율

콕스의 비례 해저드 모형을 이용하여 이행기간을 고려하여 졸업 및 중퇴 이후 미취업탈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소득계층별 차이는 소득 최하위계층과 상위 계층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4분위(상위60~80%)는 소득1분위(하위 20%)에 비해 미취업탈출율이 22.3%(100*(1-0.777) 낮았으며, 소득5분위(상위80~100%)는 소득1분위에 비해 미취업탈출율이 29.2% 낮았다. 이는 앞의 케플란-마이어 분석과도 일치하는 것으로 성별이나 인적자본 수준을 통제하더라도 고등학교 3학년 시점 가구소득이 높은 계층이 졸업 혹은 중퇴 이후 첫 일자리 이행기간이 길다는 것을 의미한다. 인적자본 수준이 미취업탈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 보면, 4년제 대학교를 졸업한 경우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경우보다 첫 일자리로의 이행 가능성이 1.37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준비 노력에서는 첫 일자리를 얻기 전 자격증이 있는 경우, 직업훈련 경험이 있는 경우 첫 일자리로의 이행 가능성이 각각 1.38배, 1.36배 높았으며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했다⁶⁾. 성별의 경우 남성이 여성에 비해, 그리고 부모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첫 일자리로의 이행 가능성이 각각 17.5%, 4.5%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취업준비노력은 미취업 탈출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높은 교육수준과 부모의 학력은 첫 일자리로의 이행을 늦출 수 있음을 의미하며, 이는 고졸 혹은 전문대 이상 대졸자를 대상으로 일자리 이행기간을 분석한 기존 연구의 결과와 일치한다(이규용·김용현, 2003; 김안국·신동준, 2007; 천영민, 2012).

<표 8> 첫 일자리 이행기간 추정결과: 미취업 탈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B	표준오차	Exp(β)
소득분위 (1분위)			
2분위	-.054	.127	.947
3분위	-.040	.136	.961
4분위	-.252#	.149	.777
5분위	-.331*	.158	.718
성별 남성	-.192*	.091	.825
교육수준 (고졸)			
전문대졸	.132	.128	1.141
대졸	.314**	.115	1.369
자격증 있음	.322***	.091	1.380
직업훈련경험 있음	.304**	.113	1.355
해외연수경험 있음	.122	.158	1.130
부모교육수준	-.043**	.016	.958
한부모가구	.188	.124	1.207
형제, 자매의 수	.010	.051	1.010
-2logL		-2956.867	
Wald Chi-Square		79.61***	
N		684(Event=509, Censored=175)	

주 : 표준오차는 Robust S.E임. #, *, **, ***는 각각 .10, .05, .01, .001 수준에서 유의함.

6) 여기서 교육수준과 취업준비노력은 고등학교 3학년 시점 가구소득의 결과변수일 수 있다. 소득계층별로 교육수준, 취업준비 노력이 달라지는지에 대해 선형회귀분석과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이용해 분석한 결과, 소득분위가 높을수록 첫 일자리 취업 시점의 교육수준이 높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취업준비노력은 소득분위별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교육수준의 매개효과를 고려할 때 소득계층별 미취업탈출율의 차이는 과소추정되었을 수 있음을 밝힌다.

2) 고용불안정

여기서는 2012년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한 고용상태(비취업, 비정규직, 정규직)와 이직횟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였다. 우선 결과를 제시하지 않았지만 고용상태를 종속변수로 한 다항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대부분의 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청년층에 있어서 일자리의 선택이 다양한 요인에 의해 결정되며, 정규직과 비정규직에 따른 고용불안정의 정도 역시 개인의 선호와 주어진 요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일례로 비정규직이더라도 전문직 비정규직과 사무직 비정규직은 고용안정성에 있어서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자발적으로 비정규직을 택한 경우에는 가구소득수준이나 인적자본과 비정규직 여부의 선형관계를 상정하기 어려울 수 있다. 이러한 요인들을 고려한 정교한 분석은 후속연구의 과제로 남긴다. 다음으로 이직횟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선형회귀분석을 이용해 분석한 결과는 <표 9>와 같다.

<표 9> 졸업 후 이직횟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B	표준오차
소득분위 (1분위)		
2분위	.309	.198
3분위	.138	.209
4분위	.170	.224
5분위	.177	.259
성별 남성	-.164	.157
교육수준 (고졸)		
전문대졸	-.071	.208
대졸	-.007	.251
자격증 있음	-.453**	.131
직업훈련경험 있음	.277	.196
해외연수경험 있음	-.116	.225
부모교육수준	.021	.025
한부모가구	.196	.205
형제, 자매의 수	-.100	.093
졸업 후 현재까지 기간	.018***	.004
상수	.472	.525
R^2	0.133	
N	763	

주 : 표준오차는 Robust S.E임. #, *, **, ***는 각각 .10, .05, .01, .001 수준에서 유의함.

이직횟수는 졸업 및 중퇴 경험 이후 2012년 현재 시점까지의 이직횟수를 의미한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수는 자격증과 졸업 후 현재까지의 기간 변수였다. 자격증이 있는 경우 없는

경우에 비해 이직횟수가 0.45회 감소하며 .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했다. 교육수준, 성별, 직업훈련 경험, 해외연수 모두 이직횟수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분석대상이 동일한 연령층(2004년 현재 고등학교 3학년)이기 때문에 이직횟수 값 자체의 변량이 크지 않기 때문일 수 있다. 이는 이직횟수에 대한 기술통계 분석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일자리 이동에 있어서는 단순한 일자리 이동 횟수보다는 산업간, 직업간 이동 등 경력변동을 고려할 필요성도 제기된다. 이는 청년층의 빈번한 직장이동이 일자리의 불안정성을 의미하기 보다는 경력일치(career match)의 과정이라고 보는 시각과 맥을 같이한다(이병희, 2002: 11). 청년기는 일자리를 탐색하여 생애 노동경력을 구축하는 시기이므로 계량적 수치보다는 일자리 이동의 전체적인 과정과 그 내용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다(Neal, 1999). 이를 고려하지 못한 것은 본 연구의 한계라고 할 수 있다.

3) 임금수준

2012년 현재 학교를 졸업하거나 중퇴한 사람을 대상으로 임금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무급종사자와 비취업자의 임금값 누락으로 인해 발생하는 표본선택 편의를 보정하기 위해 Heckman의 표본선택 모형과 Heckman 프로빗모형을 이용하였다.

먼저 Heckman표본선택모형을 이용해 로그임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소득 최하위계층인 소득1분위에 비해 소득상위계층의 임금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4분위의 임금은 소득1분위에 비해 13.1% 높았고, 소득5분위는 21.2%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했다⁷⁾. 이는 고등학교 3학년 시점의 가구소득 수준에 따라 노동시장에서 획득할 수 있는 소득수준이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주며, 청소년기 경제적 어려움 혹은 아동빈곤이 성인기의 노동시장 성과에 부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기존의 연구와 일치한다(Duncan et al, 2010; 변금선, 2013). 한편, 남성은 여성에 비해 9.6%더 높은 임금을 받고 있었으며,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임금수준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른 임금격차와 인적자본 수준이 임금에 미치는 정적인 영향은 청년층의 임금 결정요인 연구에서도 확인된 바 있다(이병희, 2002; 이규용·김용현, 2003; 박성재·반정호, 2007). 취업준비 노력에 있어서는 해외연수 경험만이 제한적이거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임금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연수 경험이 있는 경우에는 없는 경우에 비해 임금수준이 10.9% 더 높았으며, 이는 .10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했다. 하지만 직업훈련과 자격증은 임금수준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중위임금의 2/3 미만의 임금을 받는 저임금근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임금수준 모형과 유사한 결과가 나타난 것을 알 수 있다. 소득1분위에 비해

7) 이행기간 모형과 마찬가지로 교육수준과 취업준비노력은 고등학교 3학년 시점 소득수준의 결과변수이기도 하다. Sobel-Goodman Mediation Tests를 이용해 로그임금을 종속변수로 하고 다른 요인을 통제된 상태에서 교육연수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 교육수준의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했다. 즉, 여기서 소득계층이 로그임금에 미치는 영향은 소득계층이 교육수준을 통해 임금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제외한 것으로 과소추정 되었을 수 있다.

소득4분위와 소득5분위인 경우, 저임금근로를 할 가능성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남성일수록 그리고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저임금근로 가능성이 낮았다. 취업준비 노력에 있어서도 해외연수 경험이 있는 경우 없는 경우에 비해 저임금근로를 할 가능성이 낮았다. 다른 변수를 평균이나 동일한 집단으로 고정시켜 놓은 상태에서의 단위 변화에 따른 한계효과는 다음과 같다. 소득4분위 집단은 저임금 근로를 할 가능성이 5% 낮고 소득5분위 집단은 7.9%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대학교를 졸업하면 저임금 근로 가능성이 8.1% 낮아지고, 4년제 대학교를 졸업하면 17.9%로 저임금근로 가능성이 크게 낮아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해외연수 경험은 저임금 근로 가능성을 9.7% 낮추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10> 임금수준 및 저임금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로그임금 헤크만표본선택모형		저임금근로 헤크만프로빗모형	
	B	표준오차	B	표준오차
2단계 (OLS, Probit)				
소득분위 (1분위)				
2분위	.047	.049	-.064	.127
3분위	.045	.054	-.061	.140
4분위	.131*	.055	-.292*	.143
5분위	.212***	.057	-.455**	.153
성별 남성	.096**	.035	-.333***	.091
교육수준 (고졸)				
전문대졸	.142**	.043	-.355**	.118
대졸	.220***	.047	-.767***	.128
자격증 있음	-.044	.037	.121	.093
직업훈련경험 있음	-.027	.040	-.072	.105
해외연수경험 있음	.109#	.061	-.457**	.169
현일자리 지속기간	.003***	.001	-.011***	.002
상수	-.388***	.074	.709**	.220
람다(λ)	-.164#	.096	.653*	.330
-2logL	-		-1132.143	
Wald Chi-Square	66.75***		73.23***	
Censored Obs	290		290	
N	1,140		1,140	

주 1) #, *, **, ***는 각각 .10, .05, .01, .001 수준에서 유의함.

2) 2단계 결과만 제시함. 1단계 취업결정 프로빗모형에는 2단계에 투입한 변수 외에 취업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현재 거주지역, 현재 배우자유무, 현재가구소득(본인근로소득제외), 졸업 혹은 중퇴 이후 현재까지 기간, 고3시점 가족배경변수를 투입하였음.

V. 결론

본 연구는 한국교육고용패널(KEEP)를 이용하여 청년층의 노동시장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청년층이 아동에서 성인으로 이행이 이루어지는 초기인 고등학교 3학년 시점 원가구의 소득수준에 따라 청년기의 노동시장 성과에 있어서 다른 양상이 나타나는지를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2004년 고등학교 3학년이었던 청년 중 학교를 졸업하거나 중퇴한 사람을 대상으로 첫 일자리 이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고등학교 3학년 시점 원가구의 소득수준이 상위계층인 경우 첫 일자리로의 이행기간이 길고 미취업탈출 확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원가구 혹은 부모가구의 낮은 소득수준이 자녀의 인적자본을 약화시켜 취업이라는 노동시장 성과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인적자본이론과 다른 결과이다(Becker and Thomes, 1986; Cocoran et al, 1992). 높은 실업률과 고학력화로 인해 취업 경쟁이 치열한 우리나라 청년층의 노동시장 상황을 고려할 때 충분한 일자리 탐색기간과 준비여력을 갖는 것이 중요하므로, 20대 중반 연령의 청년층의 경우 노동시장으로의 빠른 이행이 높은 노동시장 성과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의 이행이 시작되는 고등학교 3학년 시점의 낮은 소득수준은 미취업탈출율을 높이지만, 한편으로는 노동시장에서 적절한 성과를 획득할 준비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노동시장으로 이행하도록 만들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한편, 본인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부모의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자격증이나 직업훈련 경험이 있을수록 이행기간은 짧고 탈출율은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소득계층에 따른 고용불안정 수준의 차이는 확인하기 어려웠다. 이는 본 연구의 한계로, 청년층의 노동행태의 복잡성을 반영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고용불안정에 있어서는 일자리 이동의 다양한 유형과 요인을 반영한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2012년 현재 학교를 졸업하거나 중퇴를 한 청년을 대상으로 로그임금과 저임금근로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고등학교 3학년 시점에 높은 소득계층에 속한 경우 청년기의 임금수준이 높고 저임금근로를 할 가능성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소득계층에 따른 청년기 임금수준의 차이는 성별, 교육수준, 취업준비노력, 일자리 지속기간 등 임금수준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을 통제하고, 더불어 표본선택 편향의 보정을 통해 노동시장 진입 확률을 통제하였을 때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했다. 이는 아동에서 성인으로의 이행기에 있어서 원가구의 소득수준에 따라 성인기에 획득하는 노동시장 성과의 수준이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주며, 이행을 경험하는 시기의 낮은 소득이 성인으로의 경제적 자립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한편, 교육수준과 해외연수 경험이 임금수준에 미치는 정적인 영향은 원가구의 소득계층에 따른 성과 수준의 불리함이 인적자본의 획득을 통해 완화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정책 함의를 갖는다. 첫째, 청년층의 노동시장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생애주기적 관점의 접근이 필요하다. 본 연구 분석결과, 청년기 노동시장 성과는 고등학교

3학년 시점 소득계층에 따라 다르게 나타남을 확인하였다. 특히 소득최하위층과 소득최상위층의 임금수준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소득최하위층의 경우 저임금근로를 할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고등학교-대학교-노동시장’으로 이어지는 학교에서 노동으로의 이행과정을 고려할 때 청년층의 노동시장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대학교 진학 이후나 졸업 이후의 인적자본 향상뿐만 아니라 고등학교 시기부터의 조기개입 프로그램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진로교육프로그램과 상위학교 진학을 위한 학습지원프로그램을 확충해야 하며, 특히 최하위소득계층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서비스를 마련해 원가구 소득수준이 노동시장 성과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완화시켜야 한다. 구직대열에서 낮은 위치에 놓인 소득하위 청년층의 노동생애를 상향 이동시킬 수 있는 장기적 전략이 필요하다.

둘째, 본 연구에서 취업준비 노력인 직업훈련이나 자격증은 첫 일자리 이행기간을 짧게 만들지만 임금수준을 높이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수준을 높이는 것은 교육수준과 해외연수 경험이었다.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고용서비스는 내일배움카드 등을 통한 자격증 및 기술취득과 고용보험의 취업상담 및 교육에 집중되어 있다. 본 연구 결과는 이러한 자격증과 직업훈련 중심의 접근이 청년층의 취업을 촉진시킬 수 있지만, 취업의 질을 보장하기는 역부족일 수 있음을 보여준다. 노동시장 성과를 높이기 위한 접근에 있어서 기술습득 중심이 맞는 방향인지 숙고할 필요성이 있다. 팬층은 일자리에 취업하여 자립할 수 있는 수준의 소득을 얻을 수 있도록 하려면 취업률 향상에 영향을 미치는 고용서비스뿐만 아니라 실제 임금수준을 높일 수 있는 교육서비스를 병행해야 한다. 청년들이 마주하는 노동시장 상황에서 대졸자와 전문대졸자, 고졸자의 임금격차가 분명하고 이후의 노동경로가 단절되었다는 점, 그리고 근로자를 선택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선발이론이 더 설득력을 갖는다는 점에서 학력이나 대학서열 요인을 변화시킬 수 있는 전략을 모색할 필요성이 있다.

마지막으로 교육, 고용, 복지의 통합적 접근이 요구된다. 본 연구를 통해 청년기의 노동시장 성과는 개인이 속한 가구의 소득과 더불어 개인이 성과하는 교육수준, 취업준비 노력 등에 의해 결정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청년층의 경제적 불안을 해소하는데 있어서 교육, 고용, 복지를 통합한 접근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특히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교육과 고용정책의 연계는 활발히 이루어진 것에 비해, 복지정책과의 연계는 근로연계정책 등 제한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보인다. 빈곤아동에 대한 교육투자나 근로빈곤층에 대한 조건부 급여 및 직업훈련 등의 프로그램 대상을 청년층으로 확장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몇 가지 한계를 지닌다. 우선 패널자료의 특성상 표본에서 탈락한 사례가 많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결과가 2004년 고등학교 3학년 코호트 모집단을 대표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본 연구에서 사용한 한국교육고용패널의 최종 조사시점은 2012년으로 고등학교 3학년 코호트가 약 27세(만25세)가 되는 시점이다. 청년층의 잦은 일자리 이동을 고려할 때 본 연구에서 사용한 노동시장 성과 변수는 과소추정 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취업과 결혼시점이 늦어짐에 따라 청년층의 연령도 30대 중반까지 연장되고 있다는 점에서 후속 연구에서는

30세 이상이 되는 시점을 포괄하여 연구를 수행할 필요성이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소득계층은 고등학교 3학년 한 시점에 측정된 가구소득으로 구분하였으므로 이후 조사기간 동안에는 소득계층의 계층간 이동이 크지 않다는 가정이 전제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는 잠정적임을 밝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청년층의 노동시장 성과를 첫 일자리의 이행, 고용불안정, 임금 수준으로 측정하여 이러한 노동시장 성과가 소득계층별로 다른 양상을 보이는지를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최근 청년층의 경제적 불안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 마련에 기여할 수 있다.

❖ 참고문헌 ❖

- 김동현(2011). TLM 이론의 개관. 이행노동시장의 이해와 고용전략, 한국고용정보원.
- 김민경, 류지영(2011). 대학졸업자의 취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분석. 제6회 한국교육고용패널학술대회 발표자료.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김수정(2010). 청년층의 빈곤과 이행의 곤란. 사회보장연구 제26권 제3호.
- 김안국, 신동준(2007). 노동시장: 고졸 청년의 노동시장 이행과 취업 실태. 산업노동연구. 제13권 제2호.
- 김위정, 김왕배(2007). 세대간 빈곤이행과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학. 제41권 제6호.
- 박천수(2009). 대학생의 해외 어학연수가 노동시장 이행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직업능력개발연구. 제12권 제1호.
- 변금선(2012). 청년층의 근로빈곤 요인에 관한 연구: 고용불안정과 고용상태가 빈곤이행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 제64권 제3호.
- 변금선(2013). 청소년기 빈곤이 청년기 노동시장 성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사회복지정책. 제40권 제4호.
- 삼성경제연구소. 2010. 청년실업의 경제적 파장과 근본 대책. 삼성경제연구소.
- 성재민, 정성미(2012). 2012 KLI 비정규직 노동통계. 한국노동연구원.
- 성효용, 김민경(2003). 여성의 미취업탈출요인에 대한 연구: 성별비교를 중심으로. 여성연구. 제65호.
- 손혜경. 2009. “스웨덴 청년실업의 원인에 대한 토론과 대책. 국제노동브리프. 제8권 제2호.
- 안주엽, 홍서연(2002). 청년층의 첫 일자리 진입: 경제위기 전후의 비교, 노동경제논집, 제25권 제1호.
- 이규용, 김용현(2003). “대졸 청년층의 노동시장 성과 결정요인. 노동정책연구. 제3권 제2호.
- 이병희(2002). 노동시장 이행 초기 경험의 지속성에 관한 연구. 노동정책연구. 제2권 제1호.
- 이상은(2008). 한국에서의 빈곤의 세대간 이전. 한국사회복지학. 제60권 제2호.
- 임병인, 김성태, 김명규(2012). 우리나라 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입결정요인 분석. 제8회 한국교육고용패널학술대회 발표자료. 421-440.
- 전재식(2002). 청년층의 취업형태 및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정미나, 임영식(2010). 대졸 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입관련 변인에 대한 경로분석. 진로교육연구. 제23권 제2호.
- 정지선, 이수정, 신정철(2011). 대졸청년층의 구직과정 및 취업의 질적 수준 분석: 전공계열별 차이를 중심으로. 직업능력개발연구. 제14권 제3호.
- 조우현(1995). 청년층 노동자의 고용문제와 실업확률의 결정요인 분석. 노동경제논집. 제18권 제1호.
- 채창균, 김태기(2009). 대졸 청년층의 취업 성과 결정 요인 분석. 직업교육연구. 제28권 제2호.
- 천영민(2012). 대졸자의 첫 일자리 이행실태 및 영향요인. 고용과 직업연구 제6권 제2호
- 최지은, 홍기석(2011). 우리나라의 세대 간 소득 이동성 분석: 아버지와 아들을 중심으로. 사회보장연구. 제27권.
- 황여정, 백병부(2008). 대졸 청년층의 노동시장 성과 결정요인. 직업능력개발연구. 제11권 제2호.
- Arnett, J. J.(2000). “Emerging Adulthood: A Theory of Development From the Late Teens Through the Twenties.” American Psychologist 55(5): 469-480.

- Becker, G. S., and Thomes, N.(1986). "Human capital and Rise and fall of families." *Journal of Labor Economics* 4(3): S1-S39.
- Corcoran, M., Gordon, R., Laren, D., and Solon, G., 1992. "The association between men's economic status and their family and community origins." *The Journal of Human Resources* 27(4): 575-601.
- Danziger, S., and Ratner, D.(2010). Labor market outcomes and the transition to adulthood. *The Future of Children*, 20(1), 133-158.
- Duncan, G. J., and Brooks-Gunn, J.(1997). *Consequences of Growing Up Poor*. New York: Russell Sage Foundation.
- Duncan, G. J., Ziol-Guest, K. M., and Kalill, A.(2010). "Early-childhood poverty and adult attainment, behavior, and health." *Child Development* 81(1): 306 - 325.
- Hill, M. S., and Duncan, G. J.(1987). "Parental family income and the socioeconomic attainment of children." *Social Science Research* 16: 39-73.
- Neal, D.(1998). *The complexity of job mobility among young men* (No. w6662).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 Abstract ❖

The Determinants of Labor Market Outcomes in Young Adulthood
by Income Class

Byun, Geumsun(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aimed to estimate the difference of labor market achievements during young adulthood (ages about 26-27) by income class in adolescence (ages about 17-18). This study analyzed the 2004-2012 data from the Korea Education and Employment Panel(KEEP) using survival analysis and Heckman's sample selection model. Main findings as follows: First, young adults who were in the highest income class have longer period of school to work transition and higher wage compare to the lowest income class. Second, young adult who had a vocational training experience or a certification had more probability to get the first job after graduated or dropped out school. Third, young adults who were graduated university or had an overseas training experience had higher wage. Based on these findings, this study suggest that young adult policies have to concentrate on welfare services for job ability of young adults who have grown up in poor families as well as improving educational attainment, and we should consider social policies support adolescents growing up in poor families in life-course view and holistic strategies.

Key words: Young Adulthood, Labor Market Outcomes, Kaplan-Meir Analysis, Cox Proportional Hazards Model, Heckman's Sample Selection Model, Heckman's Probit Model